# 호국본찰 범어사로 한국전쟁 영가 귀환

## 국가보훈처, 12월 4일 범어사서 '호국영웅 귀환 행사' 개최

###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맞아
### 전사자 보훈차원 국가 진행
### 병원 운영 · 피난민 구호 등
### 사찰 호국 활동 인정 ·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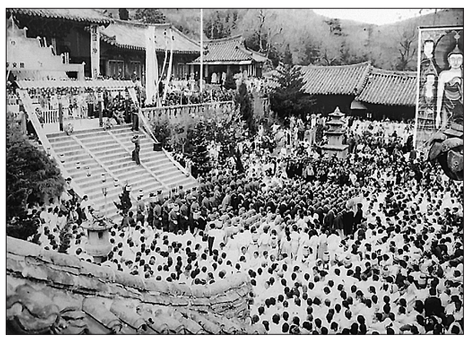




사진 왼쪽은 1952년 4월 6일 범어사에서 진행된 제1회 합동추도식 모습(김화선 금정중 교사 제공)이며, 오른쪽은 1953년 7월 4일 범어사에 있던 위패를 서울 조계사로 옮기고 있는 모습(경향신문 사진)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국가보훈처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6.25 전쟁 70주년 전사자 호국영웅 귀환행사'를 진행한다. 국가보훈처는 "범어사는 호국영현의 안식처이자 국립현충원의 효시이다"며 범어사에서 전사자 귀환 의식을 진행해 최고 예우로 모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범어사(주지 경선)는 12월 4일 정오 12시 범어사 경내에서 '6.25 전사자 호국영웅 귀환행사'를 진행한다. '6.25 전사자 호국영웅 귀환행사'는 국가보훈처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사자에게 최고의 예우로 귀환 의식을 진행하는 행사이다.

범어사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를 위한 추모 위령재를 봉행해 한국 국립현충원의 시원(始原)이 됐으며 야전병원으로 고통 받는 군인들과 시민들의 안식처가 됐다. 이번 행사는 호국 활동으로 국민과 함께한 불교의 애국정신을 대표하고 범어사가 호국도량으로 새롭게 조명돼 의미가 깊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산야에 잠들어 있는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수습한 전사자의 유골은 보훈회관 및 유가족의 집에서 의식을 진행했다. 사찰에 정식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보훈처는 "범어사는 호국불교 도량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범어사는 6.25 당시 전사자 유골이 임시 봉안돼 있었던 호국영현의 안식처이자, 국립현충원의 효시로 유서 깊은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공격으로 1950년 8월 부산은 대한민국 임시 수도로 정해졌고, 사찰은 피난민들의 구호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범어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피난민이 몰려들었고 군인들은 범어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등 범어사는 자비도량으로 활동했다.

범어사는 구호 활동 뿐 아니라 전쟁으로 희생된 전사자를 위해 극락왕생을 기원했으며 정부는 범어사와 금정사 경내에 '순국 전몰장병 영현 안치소'를 설치했다. 전쟁이 끝나고 1955년 7월 서울에 국립묘지가 설립되기까지 범어사는 한국전쟁으로 숨진 군경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국립현충원 역할을 담당했다.

아울러 범어사는 1952년 6월 6일 범어사 경내에서 '전국 군경 합동위령재'를 봉행하는 등 호국영령을 기렸다. 당시 위령재는 조실이었던 동산스님이 법주(法主)로 진행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 유엔군사령관, 외교사절단, 미8군사령관 밴플리트 장군, 백선엽 장군 등도 함께 참석하는 국가차원 행사로 치러졌다.

이번 한국전쟁 호국영웅 귀환행사의 대상자는 故 이형술 하사이다. 이형술 하사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으며 1951년 6월 25일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입대, 강원도 양구 백선산에서 전사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을 비롯해 국장스님들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각 지자체장 및 유해발굴감식단, 군 지휘관 등 5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행사는 군악대의 엄숙한 연주에 맞춰 국민의례로 시작해 헌화와 묵념, 추도법문, 신원확인 경과보고, 추모사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특히 범어사에 깃든 호국 정신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가 불교 애국 활동을 조명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 스님은 "범어사는 화엄십찰로 창건돼 왜구의 침략을 물리친 설화를 가지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전소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호국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며 "불교가 펼친 호국 활동이 조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목조원불 1000불의 원력 모이다

## 장유 동림선원, 11월 19일 목조원불 복장 및 점안법회



동림선원은 11월 19일 대법당에서 '목조원불 1000불 조성 1차 500불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은 11월 19일 대법당에서 '목조원불 1000불 조성 1차 500불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 정법사 도문 스님, 길상사 무자 스님, 통도사 진범 스님, 대원사 주석 스님, 통도사 신경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연혁소개 및 제작영상 시청, 불모 및 주지 스님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으며, 증명법사로 등단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사를 격려하고 정진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하고 수행하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포교 도량이 필요하다"며 "동림선원은 불교 문화의 선구자이자 좋은 예가 되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림선원에서 공부하는 불자들은 마음의 부자가 되어 보시하고 베풀고 성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신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불교를 열고자 동림선원 문을 열었고 2년 6개월이 지났다"며 "함께해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도량을 함께 만들어 왔다. 앞으로 전국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찰들이 문을 열고 현대에 맞는 포교로 불국토를 이뤄나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동림선원은 현재 목조 원불 1000불을 대법당에 조성 중이다. 2017년 7월 불모인 강상원 작가와 의논해 조선시대 고불을 원형으로 약사여래불,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아미타불을 조성중이다. 2018년 4월 불자 1차 천일기도 입재를 했으며 2018년 5월 13일 동림선원을 불모산 자락에 개원했다. 2019년 10월 18일 조계종 통도사 장유 전법도량으로 종단에 등록했으며 2020년 2월 10일 김해시 최초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아 불교대학을 운영 중이다. 이번 법회는 1차로 500불에 복장의식을 진행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사성암, 성금 1000만원, 쌀 2000kg전달

## "구례군민들의 아품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구례 사성암(주지 대진)이 구례지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성금 1000만 원과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했다. 11월 24일 구례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대진 스님, 김순호 군수, 유시문 군의회의장 등이 참여했다.

대진 스님은 "올해 구례 군민들은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나 모두 이겨내고 있다. 사찰도 구례 군민의 일원으로 어려움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작은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기금과 쌀을 전달받은 김순호 군수도 답장을 통해 "군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구례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구례읍과 섬진강 주변지역이 전부 침수를 당해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화엄사, 수험생에게 격려의 선물 전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격려의 선물이 전달됐다. 불교종립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화엄사 주지)은 지난 19일 정광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앞둔 3학년 수험생 360명에게 격려의미를 담아 찹쌀떡과 쵸콜렛을 선물했다.

이사장 덕문 스님과 화엄사에서 마련한 이날 선물은 지난해에 이어 전교생에게 수능대박과 좋은 결과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전달한 것이다.

3학년 11개 반을 순회하며 학생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덕문 스님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정광고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 힘내고 시험을 잘 보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전달식에는 덕문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을 비롯해 함병권 정광고 교장과 교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진안지역 사찰, 홍삼고추장 나눔축제 동참

## 탑사 · 쌍봉사 · 고림사 등 참여 눈길



마이산 탑사, 쌍봉사, 고림사가 진안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고추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쌍봉사(주지 보경), 고림사(주지 성목)는 11월 23일 진안홍삼고추장 대축제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고추장 나눔행사를 펼쳤다.〈사진〉

진안 자원봉사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고림사 주지 성목 스님,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 고림사 봉사단원 50여 명과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와 37개 진안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들과 함께 진안관내 600가구의 홀몸 어르신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에 1200kg의 진안 특산품인 홍삼 고추장을 직접 담가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홀몸 어르신들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이 담긴 홍삼고추장을 통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봉사 보경 스님은 "진안의 특산품인 홍삼고추장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에 동참하게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힘들어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복길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장은 "어려운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홈삼고추장을 통해 건강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진안군청 강당에서 열린 13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김병희 불자와 쌍봉사 강진희불자가 진안군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정토마을, 제11회 세미나 '산도 보고…' 성료




울주 정토마을이 호스피스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불교 영적돌봄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해 동안 봉사와 나눔으로 호스피스 영적돌봄 활동을 펼친 봉사자를 격려했다.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KBHA, 협회장 능행)는 11월 20일 울주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관 1층에서 제11회 호스피스 세미나 '산도 보고 꽃도 보면서'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석한 영적돌봄에 대한 정의와 자세를 설명하는 시간이자 한해 동안 노력 봉사한 영적돌봄가의 역할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회장 능행 스님은 우선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영적돌봄의 나침반과 같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는 영적돌봄가 다경 스님과 도우 스님이 담당했다. 다경 스님과 도우 스님은 활동가 사례를 통해 영적돌봄의 가치를 역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화엄경청량소〉 봉정, "부처님 말씀 전하자"

## 11월 21일 통도사 극락암서 봉정법회



〈화엄경청량소〉 출판기념회가 11월 21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봉행됐다.

〈화엄경청량소〉 출판기념회가 11월 21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봉행됐다. 〈화엄경청량소〉에 따라 붙는 수식어는 '방대하다'이다. '너무 글이 많아 손을 쉽게 댈 수도 없고 시작조차 어렵다'가 주된 설명이다. 〈화엄경〉이 80권이니 경전을 제대로 보는 것도 힘든 여정인데 거기에 붙은 소(疏, 주석)와 초(鈔, 정리문집)를 번역하고 스님의 견해까지 보탰다. 반산 스님의 〈화엄경청량소〉는 34권에 부록까지 총 35권이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스님들과 내빈들은 '이것이야 말로 한국 불교사에 남을 대작불사'라고 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오늘 이 번역서 완간은 법당을 짓는 것 보다 더 큰 공덕이다"며 "완간은 조계종사에 길이 두고 남을 소식이다. 앞으로도 정진해 많은 중생을 위해 좋은 책과 번역서를 내어 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반산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골동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살아 있는 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원력을 세웠고 오늘에서야 부처님께 책을 올렸다"고 했다.

반산 스님은 1998년 은해사 승가대학원 졸업논문을 세주묘엄품 1권을 번역하면서 〈화엄경청량소〉번역을 시작했다. 해인사 강사, 능엄학림 연구원 및 쌍계사 강주를 역임하며 번역에 몰두했고 당시 담앤북스와 인연이 되어 2018년 11월 1권을 시작으로 출판하게 됐다. 2020년 9월 1일 3년에 걸쳐 34권을 완간했으며 〈제35권 찾아보기 부록〉 출판으로 마무리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개관식 개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이끌었던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 지난 11월 16일 정식으로 개관식을 거행했다. 영덕군에서는 지난 9월 14일 장사상륙작전 70주년을 맞아 준공식을 봉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에 개관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관하게 된 기념관 LST 문산호는 길이 90m, 폭 30m로 지상 5층 연면적 4881㎡로 준공됐다. 영덕군에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324억 원을 들여 남정면 장사리 해안에 장사상륙작전에 사용했다가 좌초된 LST문산호를 재현한 시설을 만들었다. 1~2층에 자리 잡은 전시관은 작전 배경, 부대 결성, 출동, 작전 전개 순으로 전시물이 설치됐으며 3~5층 갑판과 상부는 체험과 휴식공간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